

역사문화가로 활성화 방법에 대한 고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 가로를 실제사례로 하여-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 of historic cultural street.

- Focusing on DongChun-Dang street -

윤 환* , 김 덕 수** , 길 성 호***
Yoon, Hwon, Kim, Duk-Su, Kill, Seong-Ho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atmosphere within Historic and Culturally Symbolic Street- DongChun-Dang street which represents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Daejeon-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rovement methods by analyzing preceding studies, identify problems and offer the directions that could make historic cultural street, and propose the guidelines could apply to new district development at historic cultural are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method for improvement of historic cultural street is not fragmentary but integrated. Second, we suggested plans for improvement of DongChun-Dang street. Third, to make historic cultural images of streets, it is considered that guidelines include volumes, colors of surrounding buildings and designs of street furnitures have to be provided on the new urban or district development at historic cultural area.

키워드 : 역사문화가로, 가로활성화, 동춘당

keywords : historic cultural street, improvement of street, DongChun-Da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대 이후 많은 도시들이 기능주의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강조한 양적개발에 치중해 왔다. 산업화와 경제성의 미명하에 개별 도시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자연환경이나 역사적인 유적들을 무시한 도시개발로 기존도시의 정체성은 약화되거나 소멸되었다. 특히 지방 도시들이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과거 도시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던 장소들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일부 사적의 경우에만 섬처럼 남겨져서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 들어 지방 자치단체들이 개별 도시들을 특화시키고 관광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시를 특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지역의 특수한 자연환경이나 역사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역사 환경을 단순한 관광요소로서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 환경과 어우러진 도시정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비들은 도시 공공디자인이나 일상생활 문화 공간 조성 등의 명칭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의 가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신도

시개발이나 신시가지의 개발계획 시 역사문화재를 고려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를 가진 도시가로의 정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가로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단편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제 사례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계획자의 주관에 따라 주요 사업범위가 달라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¹⁾. 그러나, 가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로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방식이 모여 종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제 사례에 적용시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추후 역사 문화적 성격을 가진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의 역사문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중요한 Guideline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역사문화를 가진 가로공간의 활성화에 대한 접근 방향을 분류해 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실제 사례를 선정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재를 가진 지역에 신도이나, 대단위 주거단지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들을 추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정회원, 우송공업대학 리모델링건축계열 초빙전임강사

** 정회원, 한밭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전임강사

*** 정회원, 한밭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의 연구용역 결과 중 일부임.

1)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사업비의 한계로 인한 부분적인 개선사업,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가로에 대한 미화사업) 등은 예외로 볼 수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를 가진 가로에 대한 정비방향에 대한 접근방향을 얻기 위해 기존 연구문헌들을 조사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실제의 가로는 대전시 대덕구 동춘당 일대의 가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춘당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교문화라는 독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나, 주거단지로서 개발된 주변의 상황에 의해 그 중요성은 잊혀지고, 주거단지 내에 자리 잡은 공원의 성격으로 전락한 장소이다. 현재 대덕구에서는 역사문화를 특화시킴으로써 대덕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역사문화가로의 활성화에 대한 접근 방향을 도출한다. 기존연구의 방향들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방향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접근방향에 따라 실제 계획에 적용시키기 위해 실시되어야 하는 조사방향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셋째, 조사결과를 통해 실제대지에 물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넷째, 이를 통해 역으로 역사문화가 있는 장소의 개발시 고려되어야 하는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2. 기존연구에 대한 분석

2.1 개념의 정의

역사문화를 가진 가로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내려져 있지 않은데, 유사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기존 연구에서 정의되어 있다. 역사문화경관에 대해서는 유산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문화재와 사람의 일상적 '생활경관', '자연경관'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경관개념²⁾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역사문화를 가진 문화재가 자체로 경관이나 가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문화재 주변 환경 및 사람의 생활과 어우러졌을 때 가로를 형성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2.2 기존 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

역사문화를 포함하는 가로에 대한 연구와 가로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분류하여 선행된 연구문헌들을 검토하였다³⁾. 역사문화를 가진 가로 활성화에 대해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제도(법, 지방자치조례)개선에 대한 연구

기존 제도에 대하여 해외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시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⁴⁾가 주

2) 조성태, 강동진, 오민근, 일본가나자와의 역사문화경관 관리특성, 한국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

3) 선행연구자료는 Auric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를 역사문화, 역사문화 + 가로, 가로활성화 의 검색어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4) 제도의 개선방향 외에 역사문화가로의 정비에 대한 개발주체

를 이루고 있다.

(2)가로 정비에 관한 연구

실제의 가로를 대상으로 특성 부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 가로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정비사업 실제사례 분석에 대한 연구

해외의 정비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알아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4)가로를 둘러싼 건물의 색채에 대한 연구

건축물의 색채는 건축공간의 구성이나 전개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⁵⁾. 이러한 면에서 역사문화가 있는 가로의 경우에 주변 건물의 색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⁶⁾.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가로경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색채의 역할이나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의 배색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가 있는 가로의 경우에 건물의 색채에 대한 Guideline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5)가로시설물의 정비에 대한 연구

가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Street Furniture외에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과 색채 등에 대한 연구이다. 주로 사례에 대한 연구와 실제 계획보고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역사문화가 있는 가로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 이미지의 개선이 주 목적의 하나인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대상이다.

(6)역사문화와 연결된 Contents에 대한 연구

해외의 사례나 국내 사례를 통해 역사문화가 있는 가로의 정비가 실시된 후 가로에서 일어나는 Event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주입되는 Contents들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이 실제사례에 적용을 통해 추후의 개발계획 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의 도출에 있으므로 제도의 개선 부분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주민의 자발적 관심과 노력에 의해 성공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⁷⁾에 지역 역사문화와 연결된 Contents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물리적인 개선방향과 시사점의 도출에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가로의 구조적 정비와 가로구성 요소들 (색채, 가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위주로 실제 가로에 적용시켜 보기로 하였다.

나 운영주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역사문화Contents와 연계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5) 박성진, 유창균, 이청웅, 도시 중심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의 색채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3권 제1호, 2007. 01

6) 이러한 예는 많이 찾아볼 수는 없으나, 대표적으로 인사동의 가로계획시 주요 건축요소에 권장색채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7) 조성태, 강동진, 오민근, ibid

3. 계획대상가로 분석

계획대상은 동춘당공원 일대의 가로이다. 동춘당공원은 효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별당을 통칭하는 것이다. 동춘당 고택 주변이 주거단지로 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와 가로로 단절되어 섬처럼 남겨진 장소이다(그림2, 그림3). 이 가로는 다른 가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유교문화라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 위치적인 상황에서도 계족산, 한남대학교, 공업단지 등 각 영역에 있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신탄진 권역에서는 신탄진과 대전탑 오거리를 잇는 주 간선도로상에서 연결될 수 있어 대덕구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대덕구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위치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주거단지 개발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되었다면 뛰어난 역사문화 가로로서 또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활성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거단지 개발 시 역사문화적 요소가 간과 되어 주변은 흔히 주거단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지러운 가로로 조성 되었고 그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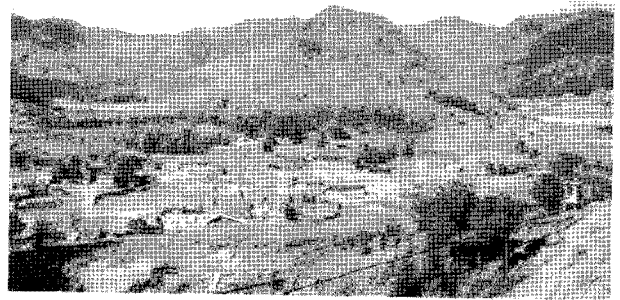


그림2. 주거단지 개발 전의 동춘당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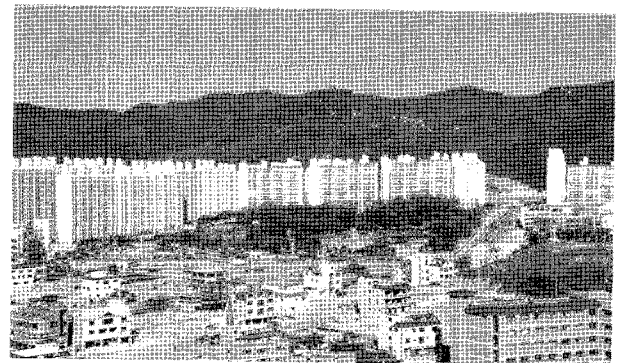


그림3. 주거단지 개발 후의 동춘당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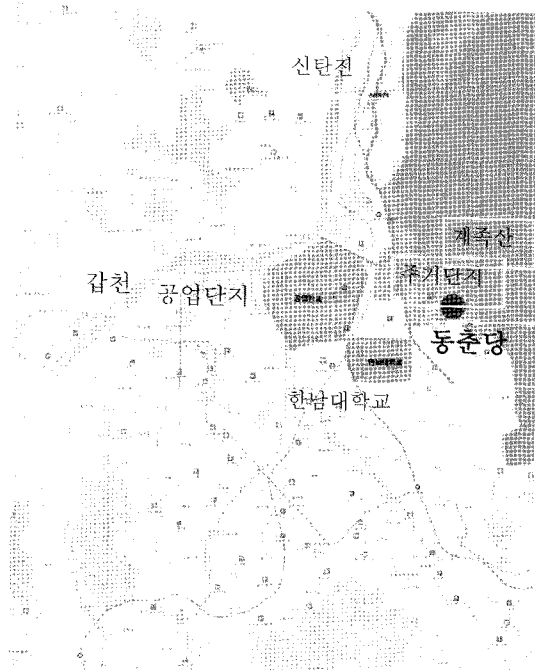


그림1. 동춘당의 광역적 위치

계획대상 가로의 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선 가로의 현황과 특성 및 구조, 가로시설물의 현황, 색채현황을 조사하는 물리적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물리적 현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용자 행태조사를 실시하였다.

3.1 물리적 현황 조사

계획대상지의 물리적 조사내용은 가로의 현황과 가로변 건축물의 색채, 가로시설물 등의 물리적인 요소를 조사 분석하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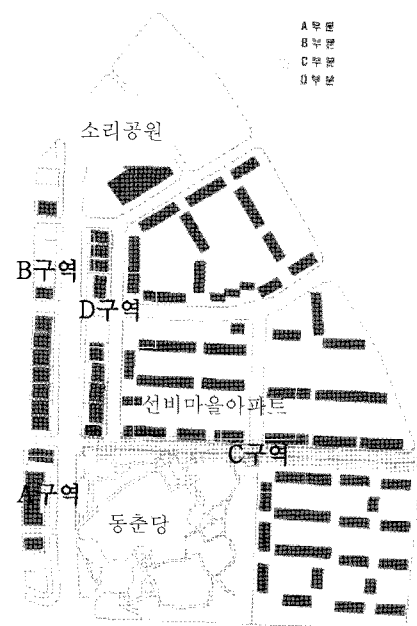


그림4. 동춘당 주변현황 및 가로구역설정

8) 가로의 경관요소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는 2007년 9월부터 10월 까지 3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조사 및 분석의 대상가로 A, B, C, D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각 구역별로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A구역: 동춘당 공원 주변가로로서 공원의 정면 역할을 하는 구역이다. 가로시설물들이 무계획적으로 자리하고 있어 동춘당 공원의 위상 및 가로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춘당에 접근하는 도로에서의 시각적 가시성이 부족하며 주변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건물들에 의해 고립된 섬처럼 남겨진 것이 시각적인 특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2) B구역: 동춘당 공원과 소리 공원을 연결하는 가로로서 조사 대상지 중 정비가 잘 된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B구역은 동춘당공원과 소리공원을 연결하는 가로로서 공원을 둘러싼 가로중 가장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다. 특히, 건축물의 높이가 비교적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어 위요감 있는 가로를 형성하고 있다. 가로변 간판의 크기 등이 일정하게 정리되고 있어 질서 있는 가로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간선도로를 따라 시설녹지가 길게 설치되어 있어 간선도로변 보행로에서 주변 건물로는 물리적 및 시각적 차단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건물들의 주 출입구는 간선도로를 등지고 아파트 단지의 주 출입구가 있는 이면도로 쪽으로 위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간선도로변 보행로의 이용

을 현저히 떨어트리며 쇠락한 동춘당 인근가로변의 이미지를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가로 전체가 비 활성화 되어 보행하기에 지루하고 또, 야간에는 음침한 경관을 형성케 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보행량이 떨어지는 가로는 결국 안전하지 않은 가로로 인식되고 다시 가로의 비활성화로 연결되는 것(9)을 고려하면, 시설녹지의 구조가 가로를 비활성화 시키고 있는 큰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역시 가로시설물들이 무계획적으로 자리하고 있어 통일된 디자인 지침에 따른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물의 주색채는 주조색이 유리의 색과 회색계통이다.

(3) C구역: 동춘당 공원에서 계족산 방향으로 조성된 가로로 아파트로 둘러싸인 구역이다. C구역은 계족산으로 가는 접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이다. 계족산을 향하는 시각적 초점과 옆에 위치한 동춘당 공원의 녹지대는 동춘당 공원의 조용한 분위기 조성에는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와는 레벨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석축이 조성되어 있어 무미 건조한 가로경관을 만들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와 가로와의 관계는 단절되어 상호간에 소통할 수 없는 공간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로변의 통행은 버스 정거장 이용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주민들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는 구역이다. 가로 경관을 구성하는 가장 큰 영향요소인

표1. 동춘당 주변 가로 물리적 환경현황

	A	B	C	D
가로시설물 현황				
가로색채현황				
문제점	동춘당 인지도성 부족 무계획적인 가로시설물	시설녹지로 인한 동선, 시선의 차단 건물색채의 특성 없음 무계획적인 가로시설물	아파트 단지의 경관 석축에 의한 동선의 단절 무계획적인 가로시설물	건물 색채의 특성 없음. 무계획적인 간판시설

아파트동의 색채는 회색조로 배색되어 무채색의 지루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인근 동춘당 공원과 색채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질적 색채 경험을 하게 되어 가로의 매력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4) D구역: 동춘당 공원에서 소리공원으로 향하는 A구역의 이면도로에 해당한다. 보행량이 거의 없이 침체되어 있는 A구역과 달리 D구역은 아파트 단지의 정문이 있는 구역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가로¹⁰⁾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이다. 동춘당 공원 인근의 가로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보행이 활발히 이루어져 활력이 있는 거리이다. 이 구역은 B구역과는 달리 간판이 어지럽게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용객이 증가하고 인근 가로가 활성화될 경우, 이에 따르는 상업적인 배후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로로 분석되었다.

(5) 동춘당 가로의 비활성화에 물리적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는 다음과 같이 종합된다.

①가로의 구조

가로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의 면이 가로에 이용자를 유입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B구역 시설녹지의 구조가 이용자의 유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구역 아파트 단지과 가로사이의 옹벽은 아파트 단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②무계획적인 가로시설물

동춘당 주변 가로에 현존하는 가로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시설물들은 관리주체에 따라서 그 형태, 색상, 재료, 위치 등이 제 각각 이었다.

표2. 동춘당주변가로 가로시설물 현황

	A	B	C	D
가로등	10	21	21	22
전력관리시설	6	11	0	0
자전거보관대	1	0	1	0
휴지통	1	2	4	0
소방시설	1	1	0	0

특히 전력관리시설은 그 기능적 특수성과 형태, 크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의 계획에 있어서 면밀하게 그 위치가 정해져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9) Jane Jacobs는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Geoffrey Broadbent, *Emerging concepts in urban space design*, Spon Press, 2001, pp138-139

10) 생활가로라는 명칭은 2000년 이후 각종 집합주거의 현상설계에 등장하면서 사용되고 있다. 정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으나 개념적으로는 집합주택단지의 외부 혹은 내부에 연결하여 일상생활공간화 된 가로로 볼 수 있다. 주로 보행중심으로 활성화되며 집합주택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김진성, 양우현, 가로의 생활공간화를 위한 집합주택단지의 생활가로 활용분석과 계획 특성, 한국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③주변 건물의 색채와 간판

주변 건물의 색채는 일반적인 도시의 가로와 비교하여 다른 면이 없었으며, 건물의 형태도 다르지 않아 가로의 특성을 부여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그 규모 및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가로의 이미지와 동춘당의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판에 있어서는 관리주체의 열의에 의해 크기와 위치 등이 어느 정도는 정리되어 있었으나, 간판의 색상과 글자의 크기 등이 현란하여 동춘당 일대의 가로를 역사문화가 있는 가로로 인식시키는 데 저해요소로 파악되었다.

물리적 현황의 조사로부터 얻어진 개선 요구점들은 연구문헌에서 지적한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단, 역사문화가 있는 가로의 비활성화는 단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가로의 구조, 가로의 디자인, 시설물 등의 종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역사문화 가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2 동춘당 및 주변가로의 이용행태 조사

동춘당 및 주변 가로의 물리적 환경 조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 행태조사를 실시하였다¹¹⁾.

평일 주간에 1시간 동안 기록된 동춘당 공원의 이용행태는 주로 운동 용도로 공원이 사용되고 있음을 예시한다. 저녁 7시 부터 8시 까지 시행된 평일 동춘당 공원이용의 야간이용행태 조사는 인근 주민들의 운동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휴일 주간 동춘당 공원은 주로 성인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주변 가로는 주로 보행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용행태의 분석도는 동춘당 공원이 문화재로서의 관람의 기능이 주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 산책 및 휴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자 역시 어린이로부터 청장년층, 중년층, 그리고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휴일 야간대의 이용현황은 평일 야간대의 이용현황과 변별력 있는 차이점을 보이지는 못했다.

동춘당 주변가로는 특징적인 이용 패턴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물리적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예측과

11) 이용행태 조사는 4명의 조사원이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조사 시간대는 오후 3시 와 오후 7시로 대별하여 1시간씩 시행하여 주간과 야간의 동춘당 공원 및 주변가로의 이용행태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동춘당 공원 이용자 행태조사는 동춘당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와 행위를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동춘당 공원 인근 가로의 교통량을 보행자 수와 이동 차량 수를 측정하여 교통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평일과 주말에 걸쳐 각각 주간과 야간에 교통량 변화를 조사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행자, 통과 차량의 수, 그리고 교통사고가 바뀔 때 대기하는 차량의 수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같이 노출되어 생활가로로 이용되는 D구역과 다른 구역의 통행량이 많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 다만 휴일 주간에는 C구역의 통행량이 급증함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계곡산으로 가는 등산객의 통행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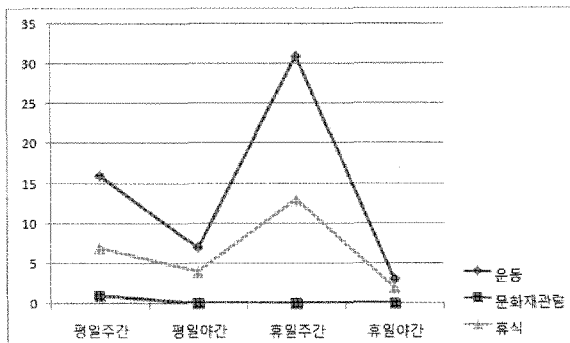


그림 5. 동춘당 공원의 이용빈도 조사

평일 주간의 차량의 이동은 동춘당 공원 정면을 지나 는 간선도로 변으로 가장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평일 야간의 차량 이동량도 주간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 휴일 주간과 야간 모두 차량의 이동은 A구역의 가로변으로 가장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통과차량의 수는 휴일이 평일이 비해 증가했음이 관찰되었다.

이용행태 조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춘당 공원 이용행태

동춘당 공원 이용행태는 A구역을 제외한 기타 구역에서는 이용자의 왕래빈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었다. 이용자의 빈도도 상당히 낮아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용자의 연령대나 이용용도는 주로 전 연령층에 걸쳐 이용하고, 운동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동춘당 가로가 역사문화적 이미지보다는 아파트 단지 주변의 근린공원이 있는 이미지로 변질되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2) 가로이용행태

B구역의 가로 이용빈도가 다른 가로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야간에는 안전이 우려될 정도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물리적인 개선점이 요구되며, 특히 시설녹지의 구조가 가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휴일의 통행량이 예상과는 다르게 많았던 C구역의 경우는 가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인자로 인식되나 가로의 구조와 물리적인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량은 A구역 가로변을 통과하여 B구역 가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구역과 B구역의 가로가 광역적인 통과동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따라서 광역적으로 역사문화

가로의 이미지를 가장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가로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3.3 분석결과

이상의 조사를 통해 동춘당 가로가 비활성화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동춘당을 중심으로 한 경관계획의 미비

역사유적의 중요도를 인지할 수 있는 경관계획이 부족하다. 주변의 아파트 단지과 상업시설들로 인하여 동춘당의 인지도는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파트 건물들은 그 높이와 형태로 인해 동춘당이 가로상에서 혹은 통과동선 상에서 인지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가로를 구성하는 건물들의 색채와 간판 등의 색채는 가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나 가로의 이미지에 대한 경관계획의 부재로 어떤 질서나 이미지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2) 주변 가로의 성격에 따른 활성화 방안 미비

동춘당 일대의 아파트 단지의 개발 이후 동춘당을 둘러싼 가로들은 가로들이 접한 대지와 도로의 성격, 광역적인 상황에 따라 그 특성이 부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동춘당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무계획적인 가로가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가로개선방향 제시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동춘당 주변을 역사문화가로로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4.1 가로별 성격 제시

본 연구에서는 동춘당을 둘러싼 가로의 특성에 따라 가로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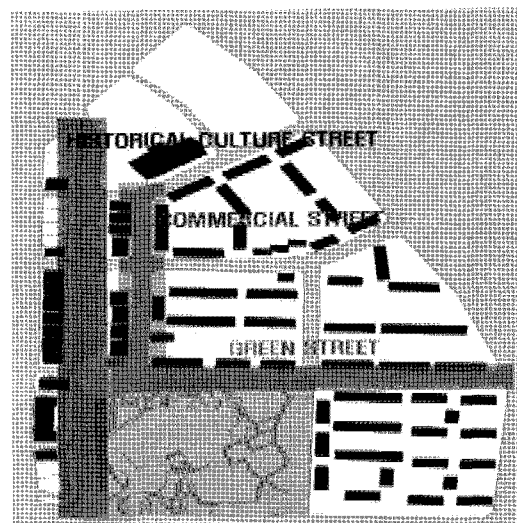


그림 6. 동춘당 주변 가로의 성격정의

(1) A구역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은 간선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진입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이미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Historical Culture Street (B구역)

동춘당을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보행자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각종 Event를 개최하거나 평시에도 역사문화의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조성해야 하는 가로로 파악되었다.

(3) Green Street (C구역)

계족산으로 연결되는 가로로서 등산로의 연장선상에 있다. 등산객의 통행이 빈번하며 이러한 특성을 살려 계족산으로부터 연결되는 녹지축이 조성될 수 있는 가로조성을 제시 하였다.

(4) Commercial Street (D구역)

주변 가로가 활성화 되었을 경우 상업적인 배후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가로이다.

4.2 개선방향제시

성격별로 정의된 가로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나타난 문체점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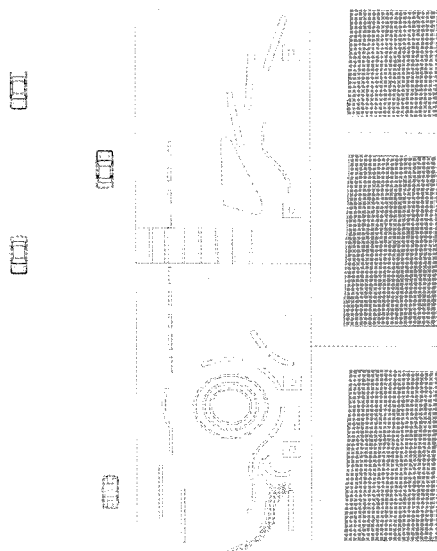


그림7. 포켓공원 조성에서 (B구역)

(1) 가로구조변경

B구역은 단절된 동선, 시선 체계의 개선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D구역과 소통하게 함으로써 보행자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의 통과동선과 이와 연결된 커뮤니티 공간은 보행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¹²⁾ 가로의 활성화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B구역의 경우에는 이미 가로의 구조가 고착

화 되어 있어 건축물의 형태가 D구역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B구역의 시설녹지에 포켓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포켓공원의 조성을 통해 보행자를 유입시켜 점진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면 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 C구역의 아파트 옹벽은 담장허물기 운동과 같은 시민의 의식 개선을 유도하여 물리적인 구조의 점진적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소극적인 개선방식은 옹벽의 녹화를 통해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가로의 특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2) 가로색채개선

가로의 색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권장할 수 있는 Guideline¹³⁾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는 단지별 재도색 시 명확한 Guideline을 제시하고 동춘당의 역사 문화적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체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 간판의 경우에는 권장할 수 있는 간판의 유형을 지침으로 제시 하여 규제 및 지도하는 관리를 통해 점진적인 가로이미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로시설물 개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이동 가능한 전력관련시설은 경관에 영향이 없는 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로등, 휴지통, 교통관련시설 등에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역사 문화 가로의 성격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역사문화 가로 개발에 대한 제언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역사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재, 혹은 유적들이 신도시 개발이나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 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닌 개발에 방해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도시 내에 역사문화 가로의 형성은 개발 후 다시 개선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를 토대로 신도시개발이나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시 역사문화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 경관에 대해 택지개발 전에 검토가 되어야 한다. 역사문화재 혹은 유적을 둘러싼 경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성될 주변 대지들의 용적율, 층수, 높이 등에 대해 Guideline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색채나 건물의 형태, 재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Guideline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12) 윤정란, 중소규모 역사도시의 도심상업지 재생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2권 제3호, 2007.06

13) 인사동의 환경색채 컨셉이 ‘Welcome, Fun, Memory, Transition’ 이었다. 이를 감성어휘로 변환하여 색채배색 전략으로 사용한 예가 있다. 이현수, 도시색채이야기, 선,2006

둘째, 역사문화재를 둘러 싸고 형성될 가로들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지의 용도를 구분하여 가로가 활성화 되고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가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로시설물은 문화재나 유적 등의 성격에 맞는 권장 디자인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로시설물은 그 종류에 따라서 관리부서나 특성이 중요하므로 가로시설물들의 위치 및 형태, 크기 등에 대해서는 가로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협의 및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형태나 색채의 변경이 불가능한 가로시설물들은 경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로에서 인식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역사문화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해야 하는 방향을 종합하고, 실제 가로로서 동춘당을 둘러싼 가로의 조사를 시행하여 동춘당을 역사문화 가로로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역사문화재를 담고 있는 다수의 가로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여 추출된 문제점이나 적용 방향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역사문화 가로의 활성화는 일부분의 개선이나 디자인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종합적인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는 역사문화 가로의 물리적인 개선 이후에 유지되기 위한 요소인 역사문화 Contents에 대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행태조사 부분에서도 나타났듯이 Contents가 없는 가로는 그 매력을 잃을 것이고 다시 가로의 비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추후의 후속연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대덕구청, 동춘당 일상장소 문화생활공간화 계획, 대덕구청, 2007.12
2. 조성태, 강동진, 오민근, 일본가나자와의 역사문화경관 관리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
3. 신중진, 김태엽, 도시재생을 위한 일본 지방도시의 중심시가지 정비수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3권 5호, 2007.05
4. 이향란, 이상준,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경관 구축 방안,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7
5. 김진성, 양우현, 가로의 생활공간화를 위한 집합주택단지의 생활가로 활용분석과 계획 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
6. 박성진, 유창균, 이청웅, 도시 중심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의 색채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3권 1호, 2007.01
7. 김정은, 이소연, 박경원, 성이용, 이상호, 옥외 광고물의 색채디자인에 따른 가로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0권 1호, 2004.01
8. 윤정란, 중소규모 역사도시의 도심상업지 재생방안 연구, 대한

- 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2권 제3호, 2007.06
9.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광주시 도심가로경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3
10. 이현수, 도시색채이야기, 선, 2006
11. Geoffrey Broadbent, Emerging concepts in urban space design, Spon Press, 2001

(접수 : 2008. 1)